

# 도전하고 변해야 산다



민 연 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자.

미국산 쇠고기가 예전처럼 수입되면 우리 한우산업은 무너질까? 한·미 FTA가 타결되면 우리 축산업은 붕괴할까? EU와 FTA 협정, DDA협상이 체결되면 우리 축산업은 어떻게 될까?

최근 우리축산업을 둘러싼 현실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변화와 도전은 불안하고 힘들다. 변화와 도전없이 더 나은 미래는 없다. 변화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라면 오히려 맞서 싸워 이겨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2001년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을 앞둔 1990년대 말 당시 국내 축산농가의 반응과 그 결과는 좋은 교훈을 준다. 결론부터 말해 불안심리가 축산농가를 덮었지만 일시적 혼란이 해소되면서 한우산업은 건재함을 유지했다.

수입자유화에 앞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2000년까지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유보하고 의무수입 쿼터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96 ~ '00년 사이 쇠고기 수입량은 쿼터량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수입량은 쿼터와 관계없이 국내 쇠고기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됐던 것이다.

이처럼 국내 농가들의 지나친 불안감과 과민반응이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한우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자신감과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 기초를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자.

우리 축산업은 그동안 시장개방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규모화, 품질 고급화, 안전성 제고,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등 주요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축산분야 생산액이 '05년에 약 12조원으로 전체 농림 생산액(37.2조원)의 32% 이상을 차지하고 쌀 생산액보다 3조원 이상이 많다. 축산업이 농업분야에서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쇠고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96년 19%에서 '06년 45%로, 전체농가 중 전업농가 비중도 '96년 29%에서 '06년 66%로 대폭 증가하였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시범사업실시, '07년부터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도입 등으로 축산물 안전성 기반도 강화되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추진 등으로 친환경 축산기반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성과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투자와 농가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합쳐진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면서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해 온 결과라고 여겨진다.

앞으로도 한미 FTA 등 개방 확대, 빈번한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상승,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2012년 분뇨 해양투기 금지 등 더 많은 제약 요인이 놓여 있어 우리 축산업이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

그러나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결국 환경을 우선 고려하면서 보다 맛있고 더 싸고 더욱 안전한 우리 축산물을 생산하면 세계와 경쟁하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충분히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품질 고급화, 생산비 절감, 안전성 제고, 수입산과 유통과정에서 차별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일찍이 징기스칸은 “성 쌓는 자 망하고 이동하는 자 흥한다”라고 했다. 항상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우리 축산업은 분명 희망이 있다.

## 가축개량 없이 축산업의 미래는 없다.

특히 개량은 축산의 시작이자 끝이다. 체계적인 가축개량으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축종별 증장기 개량목표와 세부계획을 담은 「중축산업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우의 경우 비육기간을 현행 보다 6개월이상 늘리고, 수소의 평균 출하체중도 현재보다 25% 가량 증체된 711kg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한편 등심면





적, 등지방두께와 근내지방도 등 육질 점수가 높은 종축을 선발하여 품질을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개량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육종농가가 갖고 있는 유전능력이 뛰어난 암소와 가축개량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씨수소를 교배시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고, 이 송아지들의 능력을 평가하여 매년 20두의 보증씨수소를 지속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보증씨수소를 이용하여 인공수정용 우량 정액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고기 생산량이 많고 육질 좋은 한우고기를 생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젖소도 한우와 마찬가지로 모계의 혈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육종농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량성과를 지금보다 2배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

금년도의 경우 고능력 보증씨수소를 이용, 44만두분의 정액을 생산 공급하여 국내산 정액 공급율을 현행 55%에서 64%로 높이고 전체 인공수정 비율도 98%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돼지는 규모화된 업체 10개 내외를 검정 종돈장으로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돼지개량 Network」를 구축하여 유전정보를 수집·평가해서 8~10년 후부터 국내 자체적으로 우량 원종돈을 선발·이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닭·오리는 AI 등 전염성 가축질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된 육성 종계용 축사시설을 개선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09년부터 중오리업을 신설하는 한편, 내년부터 원종오리 전문생산농장을 2개소 육성하여 새끼 오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끊임없는 도전으로 미래를 열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자세와 생각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는 개발과 자기혁신을 통한 노력이 있다면 우리의 축산은 분명히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개량을 통해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 안전성을 강화한다면 개방화시대에도 우리 축산은 소비자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것이다.

정성 없이 피는 꽃이 없고, 땀 없이 맺는 열매가 없듯이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없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펼칠 수 없다.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뛰어야 할 때이다.